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22.02.03.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대상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
* 재직건축사(소속건축사)는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

■ 회원가입 기한

-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 회원가입 신고

- 시도건축사회 가입 신고 (본 협회에 자동가입 처리)
* 지역건축사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결정

■ 회원가입 절차

- 건축사 자격 등록 ⇨ 건축사사무소 개설 ⇨ 대한건축사협회 입회 ⇨ 정회원 활동

■ 회원가입 제출서류

- ① 정회원 신고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 ④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 ⑤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서식안내
- ①, ② : 협회 누리집(kir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누리집 상단 협회소개 → 회원가입안내)
- ④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 정회원 회비

구분	납부 시기 (기한)	회비 기준금액
입 회 비	협회 회원 가입시	200만 원
정회원(월정)회비	해당월분 매월 말일까지	25,000원/월

■ 회원가입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본협회	02-3415-6800	대 전	042-485-2813~5	충 남	041-338-4088
서 울	02-581-5715	울 산	052-274-8836	전 북	063-251-6040
부 산	051-633-6677	세 종	044-862-6636	전 남	061-285-7563~4
대 구	053-753-8980	경 기	031-247-6129	경 북	054-859-8170
인 천	032-432-3381~4	강 원	033-254-2442	경 남	055-246-4530
광 주	062-521-0025	충 북	043-223-3084	제 주	064-752-3248

* 회원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실적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상과 좋은 건축

Architecture Awards & Good Architecture

글. 박정연
Bahk, Joung Yeon
본지 편집국장

많은 건축사들이 자신의 작업이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길 기대한다. 설계를 진행한 작업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고 건축상을 수상하는 것이 다른 좋은 작업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곡차곡 쌓인 포트폴리오가 건축사로서 걸어온 길이며 사무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설계자의 의도 그대로 멋진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 작품으로 인정받고 미디어와 건축상이 주목해 주길 기대하곤 한다.

건축 작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미디어는 보다 멋진 공간, 특별한 형태, 새로운 재료 등을 다룰 때 구독자의 관심을 끌기 좋다.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나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어야 하는 상업시설 등은 이러한 특별함이 건축주의 요구조건이자 건축물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주변과 어우러지며 눈에 띄지 않지만 편안한 내부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주거시설이 있을 수 있고, 저렴한 예산으로 빠르게 완성되어야 하는 용도의 건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상을 수상해야 할까.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은 좋은 건축일까를 생각하다가 한 건축사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좋은 건축이란 건축주와 이용자가 본연의 용도에 맞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이라는 내용이었으며, 형태보다는 공간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이미 유명한 분의 인터뷰는 건축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신진 건축사들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민해 볼 주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조건에 맞춰 창의성을 더한 설계가 건축상을 수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독특한 형태와 특별한 재료를 사용한 건축이 마냥 좋은 건축이

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일침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건축상은 대중과 건축학도들,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에게 지향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유행을 만들기도 하며, 상을 수상한 작품이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월간 <건축사>지는 건축사들의 진지한 고민과 건축주의 의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살피려 하며, 다양한 지역의 작품과 신진 건축사들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할 작품들을 찾아보고 선정하는 과정은 많은 건축사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즐겁다. 월간 건축사지를 통해 미디어에 작품을 게재할 기회를 갖고, 노력과 결과물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본지는 12월마다 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양한 작품 속에 담긴 설계자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껴본다.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도 외 관계자들 사이의 조율 과정 등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 건축사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에 못지않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다른 모든 분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싶다. 굳이 프리츠커상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좋은 건축 작품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맛을 가지고 좋은 건축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이 많아진다면, 언젠가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금년에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대중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에 더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어 진일 보한 건축문화를 그려내기를 기대한다.

